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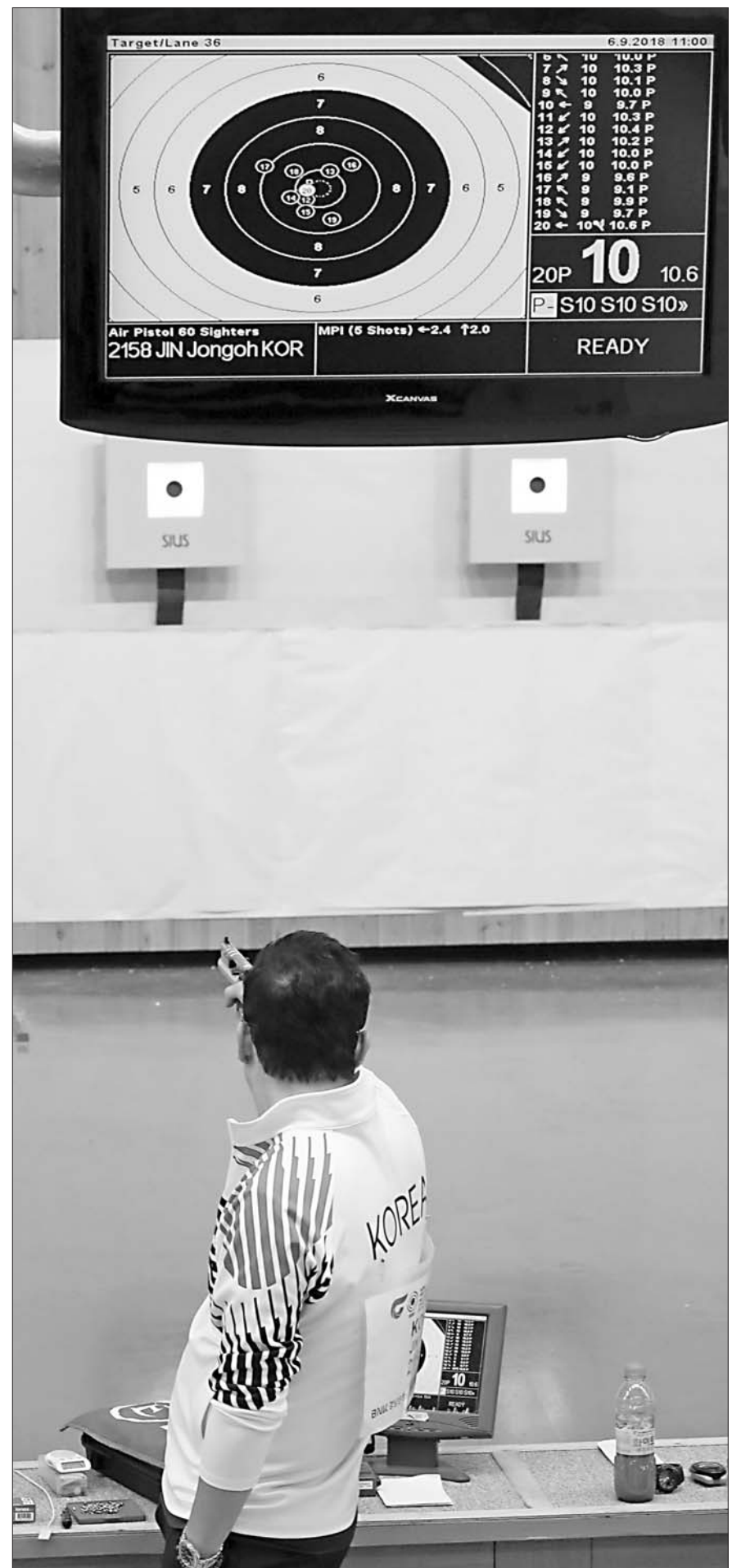
이용대, 코리아오픈으로 컴백

25~30일 빅터 코리아오픈 베드민턴 대회 개최
국가대표 은퇴 후 첫 출전...김기정과 복식 호흡

국가대표에서 은퇴하며 국제대회에 쉽게 출전하지 못했던 이용대(30·요넥스·사진)가 2년 만에 빅터 코리아오픈 베드민턴 대회에 복귀한다.
이용대는 김기정(28·삼성전기)과 남자 복식조를 결성,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송파구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리는 세계베드민턴연맹(BWF) 월드 투어 슈퍼 500 대회인 2018 빅터 코리아오픈 대회에 출전한다.
코리아오픈은 2년 전 이용대의 고별무대였다.
이용대는 2016년 10월 이 대회를 끝으로 국가대표에서 은퇴했다.
당시 유연성(32·수원시청)과 남자복식 세계랭킹 1위를 지키던 이용대는 2017 코리아오픈 남자복식 우승을 차지하면서 완벽한 고별전을 꾸미고 태극마크를 반납

했다.
이용대는 14년간 국가대표를 지내면서 짊어졌던 부담을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국내 대회에 출전하는 등 베드민턴 라켓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국가대표 은퇴로 국제대회에 출전하기는 쉽지 않았다.
대한베드민턴협회는 국가대표가 아닌 남자 31세, 여자 29세 이하 선수는 국제대회 출전할 수 없다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성현(31·김천시청), 신백철(29·김천시청) 등 이 규정에 반발한 선수들이 협회와 법정 싸움을 벌여 지난 5월 2심에서 승소, 국가대표에서 은퇴한 선수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국제대회에 출전할 길이 열렸다.

협회는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2심 판결로 해당 규정은 효력을 잃은 상태.
이용대-김기정은 지난주 '바르셀로나 스페인 마스터스 2018'에서 새로 호흡을 맞췄고, 단숨에 남자복식 우승을 거머쥐면서 힘찬 새 출발을 했다.
고성현-신백철도 지난달 베트남오픈에서 남자복식 우승을 거두면서 국제대회 활동을 재개했다.
코리아오픈에는 남자단식 손완호(30·인천국제공항), 여자단식 성지현(27·인천국제공항), 여자복식 이소희(24·인천국제공항)-신승찬(24·삼성전기) 등 현 국가대표 간판선수들도 대거 출전한다.
또 남자단식 허광희(23·삼성전기), 남자복식 강민혁(19·삼성전기)-김원호(19·삼성전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국제대회 경험을 쌓은 유망주들도 국내 팬들에게 인사를 한다.
남자단식 세계랭킹 1위 빅토르 악셀센(덴마크)과 린단(중국), 모모타 겐토(일본) 등 세계적인 베드민턴 스타들도 총집결한다. /연합뉴스



진종오 '간다' 6일 경남 창원시격자장에서 열린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 대회 남자 10m 공기권총 경기에서 한국 진종오가 격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완전체' 광주FC, 안산 상대 대승 노린다

9일 원정 맞대결...나상호·이승모·여름·김진환 팀 복귀

프로축구 광주FC가 드디어 완전체를 갖았다. 광주는 대승을 목표로 원정길에 오른다.
광주는 오는 9일 오후 7시 안산와 스타디움에서 안산과 KEB하나은행 K리그 2 2018 27라운드 원정 경기를 펼친다.
현재 광주는 플레이오프 진출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다. 승점 5점 내

에서 부산아이파크, 수원FC, 대전시청과 매 경기 순위를 다투는 중이다.
최근 5경기 연속 무승부로 주춤했던 점은 아쉽다. 다만 중위권 팀들이 얽혀락뒤락 하면서 4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경쟁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번 안산전은 완전한 전력으로 나서는 첫 경기다.
아시안게임으로 차출됐던 에이스 나상호와 이승모는 물론 군 복무를 마친 중인

사령관 여름과 수비수 김진환이 복귀했다.
특히 나상호와 여름의 복귀는 천군만마와 같다. 공격수 펠리페가 경고누적으로 빠진 상태에서 현재 리그 득점 선두(11골)인 나상호의 복귀는 득점력 회복에 가장 큰 열쇠다.
또 공수 연결고리와 정신적 지주인 여름이 돌아오면서 탄탄한 허리를 구축하게 됐다. 이제 안산전에서 승리로 파괴력을 보여줄 차례다.
이번만 아니다. 기존 중원 자원인 김동현이 지난 부산전에서 득점으로 맹활약했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기대를 한몸에 받

고 있다. 여름과 처음 호흡을 맞추기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광주는 올 시즌 현재까지 안산을 상대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지난 6월 원정에서 0-2로 패하는 아픔을 겪었기에 반드시 되갚아 줘야 한다.
안산은 최근 10경기에서 1승 9패 4득점 14실점으로 심각한 부진에 빠져있다. 또한, 공격의 한 축인 코네가 라이베리아 대표팀에 차출되어 이번 광주전에 나설 수 없다.
전력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방심할 수는 없다. 안산의 1승이 지난 라운드에 나온 데다 홈 경기인 만큼 연승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크기 때문이다.
광주가 안산을 꺾고 플레이오프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상기 기자 gie9928@

아시안게임 출전 활약 광주 선수단 환영 행사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광주 소속 국가대표 선수들이 오랜만에 광주를 찾았다.
광주시체육회는 6일 오후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대회 '광주선수단 환영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혜림, 김국영 등 거목을 키워낸 명장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과 노승석 전무이사, 박태경 코치 등 임원과 허들여왕 정혜림(육상·광주시청)을 비롯해 강영미(펜싱·서구청), 전용태(근대5종·광주시청), 이주미(자전거·국민체육진흥공단), 김성연(유도·광주도시설도공사), 남동현(승마·광주승마협회) 등 광주를 빛낸 선수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 행사에 참석한 이용섭 광주시장(체육회장)은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에게 금메달 300만원, 은메달 200만원, 동메달 100만원의 포상금을 전달했고 입상하지 못한 선수들에게도 5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이 시장은 "올여름 무더위에 지친 국민께 희망을 선사한 여러분이 매우 자랑스럽고 이 기쁨을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나누겠다"며 "광주체육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정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광주시선수단은 이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17개 종목 36명이 출전해 금메달 7개,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 등 총 13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대한민국이 선전하는데 기여하고 모두 귀국했다. /조상기 기자 gie9928@



베트남 축구 박항서 감독이 6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항서 감독 금의환향... "현재 만족"

베트남 AG 최초 4강 올라...국내 휴식 후 스즈키컵 준비

베트남의 영웅, 박항서 감독이 금의환향했다.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이끄는 박 감독은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 땅을 다시 밟았다. 현지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2시간가량 연착됐지만, 피곤한 기색 없이 특유의 웃음을 지으며 국내 취재진과 인사를 나눴다.
박 감독은 먼저 "많은 분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베트남 대표팀에 성원을 보내주셨다.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으로서 감사드린다"라며 입을 열었다.
이어 아시안게임 이후 베트남 현지 분위기를 묻는 말엔 "메달을 따지 못해

는 베트남 내에서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
베트남 내에선 박항서 감독과 연장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빗발치고 있다. 한편에선 연봉 3억원 수준인 박 감독의 대우가 너무 박하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이에 박항서 감독은 웃으며 "선수들과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 연봉 문제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라며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박항서 감독은 이번 달 말까지 국내에 머물며 머리를 식힐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는 11월에 개막하는 동남아시아 축구선수권대회(스즈키컵) 준비에 들어간다.
박 감독은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고 한국을 찾아 국내에서 스즈키컵을 대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진종오, 세계사격선수권 4번째 금메달

10m 공기권총 단체 정상
최고점을 올려 2위로 결선에 오른 가운데 진종오가 582점으로 5위, 한승우가 581점으로 8위를 기록했다.
3명 모두 결선에 출전한 대표팀은 한국 세계사격선수권 사상 첫 금-은-동 싹쓸이에 도전한다.
진종오는 2010년 뮌헨 대회 남자 50m 권총 단체전에서 개인 첫 세계선수권 우승을 차지한 뒤 2014년 그라나다 대회에서 1천747점을 합작해 1위를 차지했다.
2위 인도는 1천738점, 3위 러시아는 1천736점이다.
이대명은 584점으로 한국 선수 가운데 /연합뉴스

최다 피안타...류현진, 메츠전서 시즌 2패

최다 타이 11피안타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1·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시즌 5승 대신 2패째를 떠안았다.
류현진은 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뉴욕 메츠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6이닝 동안 삼진 8개를 솜아냈으나 안타 11개를 맞고 5실점 했다.
수비에서 야수의 도움을 받지 못해 류현진은 자책점(3점)보다 많은 점수를 줬다.
류현진은 2-5로 뒤진 6회말 타석에서 체이스 어틀리로 교체됐다.
다저스는 3-7로 패해 류현진은 지난달 22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전에 이어 보름 만에 시즌 2패(4승)째를 당했다.
류현진은 2013년 메이저리그 진출 후



통산 3승 무패를 달린 메츠에 첫 패배를 당했다.
류현진의 메츠 전 최고 구속은 시속 148km였다. 공 88개를 던져 64개를 스트라이크로 쏘았다.
류현진의 평균자책점은 2.24에서 2.47로 올랐다.
류현진은 속구 29개를 비롯해 체인지업 23개, 컷 패스트볼 18개, 커브 17개, 슬라이더 1개를 던졌다.
방망이에 정통으로 맞은 타구보다 빗맞은 타구가 많았고, 야수들의 글러브를 아슬아슬하게 벗어났을 정도로 불운했다.
류현진은 개인 통산 4번째로 한 경기 최다인 안타 11개를 허용했다. 지난달 27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 이어 올해에만 두 번째다. /연합뉴스